

6



박영선생

박영 (본명 박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선생은 1915년 11월 4일에 남한 대전시
 에서 태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었다.

박영선생이 5세가 되던해에 박영선생의 복
 친은 아들 형제 딸 하나를 등에 업고 동생과
 함께 두 세대는 중국 동만주에 이주하여 갔다. 그
 러나 그곳에도 조선에서 일러의 압박은 어찌를 못하
 여 넘어온 여주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 발붙
 일 없었고, 노작살을 얻을수 없었다 이런 환경에
 서 박영선생복친 형제는 허탈하여 로령지에 발
 들트리게 되었다. 러시아 땅에 넘어온 이들은 영동

2

변경 후어플 구역의 직리를 잡고 넓은 양아 혼한 땅을
마음대로 갈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본래 어지렁은
호지가 아주 비옥하여 농사꾼들에게 년년히 가을이던
엄청난 풍작을 이루게 하였다.

박영 선생의 부모들은 어곳에 어루하여 온갖을 어루행
봄으로 생각하고 흥복한 생활에 안락하게 지내던데
고향에서 어곳에와 직리잡은 박영선생의 부모들이
가정에는 아들 5형제가 더 ^부터, 언제든 아들 부형
제 딸 하나라 귀엽게 자라났다. 박영 선생은 그중에서
제 2남이었다. 박영 선생은 군소^리에서 1931년에
초중을 마친후 다음 원릉변강에 유일한 한인사전을
1934년에 설립하고 자기 손에 돌아와 교편을 잡고
1937년 원릉으로 복귀한 강제로 어루때까 ^직임하
시였다. 강제어루 당시 박영 선생 부모들은 처음에는
카자흐 공화국에 도착하였다가, 니중에는 두르베허
다뉴 권은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박선생은 다뉴 권은
주 여러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교원 일을 계속하시였다.
1938년에도 박선생은 중앙시아 국립종합대학 령사
학부 흥신라에 입학하였다. 흥신라 입학하게 된것은
가정의 경제 형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박영 선생은 1944년에 종합대학 령사학부를 졸업
후서로 화뉴 권은주 공립직구역 가라복 고중 령사
담당교원으로 일하시였다.

박성 선생은 본래 인물이 밝을수록 유별이 능숙한
 역사학 선생으로 우리 학생들중 교원도 중에서, 또한
 학생중에서 위인이 아닌 - 저만 하리안했다. 선
 생은 연례의 행정관리 사업은 묵언하고 다만 학도교
 유 사업에만 전력을 다하여 임하시었다. 박성 선생은 1941
 년에 하급 위인 있는 교원으로 보령공산당에 영예롭게
 임명되었다. 일 년이 경과하면 초급당관으로 당서도
 책임어이로써 활동권리가 보장된다는 언약에 의하여 박성
 선생은 1943년 부터 당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젊은 세대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사회 운동사업에 몰두하시었다.

보령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6년 8월에 박성 선생을
 북한 정복에 파견하여 중서공산당 원칙에 의한 북한 국
 가 건설에 모든 힘으로 이바지하게 하였다.

박성 선생은 북한에 도착하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평양 국립사대 력사학부 교원으로 일년동안 지내신다
 계속하여 1차대 력사학부장으로 두십년간 임하시다가
 1985년에 공화국 헌법으로 4차연대하여 사회부장
 관으로서 평양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었다. 평양에서
 행복한 생활이란 어디있는 말이지만 비교적, 자식들
 같이 무행하게 지냈단 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박성
 선생의 력사학부장으로 평사대에이게 하시면서 학생들
 서 돌아간 말들을 회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 한바디가
 생각된다. 그것은 학생들이 박성 선생 앞에서 시험을
 볼때 얼마나 박성 선생을 어렵어 하였는지 "평양사대
 서는 졸업장을 쥐자면 "박영고개"를 무척히 넘어야한

다고 하였다. 이렇게 황영철을 군공복에 취신 있고 교수
 사업을 열성적으로 한 박성생은 사상적인 사업에 걸어서 약
 5년간 눈에 나가 있다 다시 평양에 돌아와 낮에 밖에서
 상여 날때까지 살았다. 한번은 알라하시에 살고
 있는 딸이 박영선생을 만나볼 것을 평양에 찾아가면서
 양복 헌벌라 씨 구두 한 켤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
 에게 몰라나, 박성생은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 아
 이런것은 이 평양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면서 - 이것을 시장에 나가서 팔
 아 좀 낚은 것을, 낚아 잃는 것과 신던것은 사가지고
 하시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지방천국이란 평양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박영선생은 1992년 9월에 평양에서 퇴거
 하시었다.

1999.년 10월 10일 하동권도.